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능력의 시장 가치

김진영*·최형재**

본고는 영어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며 영어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대가로 이어지는지를 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영어 능력은 학력과 연령에 크게 의존하며 남성의 영어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14세 당시 거주지 및 부모 학력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학력이나 연령을 통제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영어가 요구되는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관적 평가로 영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나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대략 30% 정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된다. 그러나 제한된 표본에서지만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의 임금이 높은 현상은 관측되지 않는다. 한편 2007년의 영어 프리미엄이 2001년 프리미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영어 프리미엄은 상당히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능 백분위점수를 통제할 경우이나 도구변수법을 사용한 추정에서는 영어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영어 능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영어 능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1. 서론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영어 능력은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자의든 타의든 거의 모든 학생들과 적지 않은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영어 능력은 선택이 아닌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영어능력 향상에 강조를 두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교육투자에서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투자가 공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물론 학원, 개인교습,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교육 투자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어 능력이 필수 능력으로 간주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영어 능력에 따른 높은 수익이라는 경제적 유인도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영어 능력에 대한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하자면 우선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건국대 경제학과, ** 고려대 경제학과

본고는 영어 능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살펴본다. 영어능력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공존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영어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높은 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영어 능력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은 다시 영어 능력 습득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 사교육에서 영어 사교육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높은 기대 수익과 그에 따른 투자라는 상호작용의 모든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 능력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는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 이민자의 영어 능력과 임금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크게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Chiswick and Miller는 이런 연구의 선구자들로 언어와 이민자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내 놓고 있다. 물론 언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언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담은 단행본도 2000년대 들어 세 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단행본들의 주제 역시 언어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Rubinstein(2000))이나 영어권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영어 능력과 노동시장 성과(Chiswick and Miller(2007)), 그리고 의사소통, 문화와 동화(同化), 이중언어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집(Lamberton(2002))등으로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석들을 다룬 문헌은 찾기 어렵다.

영어가 사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 능력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일본 노동시장에서 영어 능력과 임금 및 직업 선택을 분석한 Kanto(2005)의 논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기존 연구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그 동안 영어 능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가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큰 관심을 끌만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영어 능력이 노동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현 시점에서 영어 능력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넓게 보아서는 사회적인 인적자원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좁게 보자면 효과적인 영어 공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노동패널 9차년도 조사에서 영어에 관한 설문을 첨가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어 능력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크게 (1) 영어능력 형성과 (2) 영어 능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영어 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을 도출해 보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영어 능력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는 노력의 첫 걸음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영어 능력의 형성, 영어 능력의 측정, 영어 능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가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의 해석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선행적 논의들을 정리한다. 이하는 영어 능력과 실증분석으로 제 3장에서는 영어 능력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력, 연령, 가정환경 등이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지를 도출해 본다. 영어 능력 변수로는 회화 독해 작문 등에 대한 자기 평가, 직무에서 영어의 필요도, 토플 토익 등 영어 시험 점수 등이 활용될 것이다. 영어 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을 도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영어 능력이 관측되지 않는 다른 능력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다 정확히 영어 능력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능력에 대한 대리 변수들을 활용한 회귀 분석이나 도구변수법에 의한 추정 등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제 5장은 맺는말이다.

II. 선형적 논의

1. 외국어 능력 결정요인과 측정문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능력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지에 대해 경제학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학에서는 많은 행동의 기본적인 유인으로 작용하는 비용과 편익(cost-benefit)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통해 언어 습득의 비용과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능력의 결정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어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과 언어 습득에 들어가는 투자에 따라 형성되어 갈 것이다. 이 중 선천적인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여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영어 능력 형성을 위한 투자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경제적 해석이 분명한 투자는 영어 학습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다. 정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학원이나 개인 교습 등의 사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해외 연수라는 형태를 갖든지 영어 능력의 습득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이 비용과 영어 능력이 반드시 비례하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적어도 영어 능력 습득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어 능력은 이 비용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한편 영어 능력 습득을 위한 비용은 개인의 가정환경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가정의 경제력은 영어 습득을 위한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가정적 환경 외에도 영어가 잘 이용되는 주변 내지 지역 환경이라든지 정규교육에서 영어 선생님의 능력 등 관측되기 어려운 여러 요소들은 같은 비용이로도 더 나은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현금 지출을 동반하는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회비용도 있다. 영어 능력 습득은 상당히 긴 시간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인적자본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영어 습득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은 다른 형태의 인적자본을 형성할 시간과 노력을 희생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회비용에는 개인적 차이가 클 것이다. 이를테면 선천적 능력 등의 이유로 언어습득에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때 기회비용은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영어 능력 투자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얻어진 영어 능력과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어 능력에 따른 수익이 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영어 능력에 따른 수익률이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의 대안이 되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상회할 것인지 등은 인적자본 투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영

어 능력 습득을 위한 투자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투자와 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매우 짧아서 현재로서는 어떤 자료로도 투자 대비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고찰보다는 영어 능력에 따른 수익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영어 능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은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수익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림을 통해 얻는 효용이나 외국어로 독서를 하면서 누리는 효용 등 비금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어 능력에 따른 수익은 더 높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능력에 따른 수익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영어 능력이 얼마만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느냐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어 능력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측정해 낼 수 있다면 이를 “영어능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wage premium from English skill)” 혹은 더 간단히 “영어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어 프리미엄의 추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문제는 영어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음의 문제는 다른 요인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의 실증분석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영어 프리미엄 추정에 핵심을 이룬다.

우선 영어 능력의 측정 문제부터 생각해보자. 가장 좋은 영어 능력 측정치는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영어 시험 점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토익(TOEIC)이나 토플(TOEFL)과 같은 표준적인 시험은 개인의 영어 능력에 대한 상당히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지표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비교적 연령이 낮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이용가능하다는 점이다. 토익과 같은 시험이 광범위하게 치러진 것은 1990년대 말 이후의 현상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어 시험 점수는 관측되지 않는다.

관측치가 적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대체 지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설문을 통해서 얻은 주관적 영어 능력 지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관적 영어 능력 지표 추출을 위해 노동패널 개인 설문에서 영어 회화 독해 작문 세 항목별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물론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은 영어 능력 지표는 많은 관측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대신 주관적인 평가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남게 된다.

이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는 직무에 영어 능력이 요구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기업에서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에 영어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 영어가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어 실력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주관적인 평가라는 한계는 갖지만 영어 능력을 대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입직 과정에서 영어가 요구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영어 능력의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입직 시 영어 능력이 요구되었으며 그 입직 과정을 통과했다면 그 사람은 영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질문은 직무에 영어가 요구되느냐와는 상당히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이때의 영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선별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영어가 활용되면서 얻게 되는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더 높은 임금을

얻는 좋은 일자리에서 오는 높은 임금일 수 있다. 물론 선별과정에서만 활용되는 영어 프리미엄이라든가 영어 프리미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프리미엄과 생산성과의 관계는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고려하는 모든 영어 능력 측정치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하의 실증분석에서는 모든 지표들을 가능한 한 두루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통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회귀분석에서 도출되는 영어프리미엄은 진정한 영어 프리미엄을 과대추정(overestimate)할 가능성이 높다.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임금을 높일 수 있는 관측되지 않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을 경우 영어 프리미엄은 과대추정 된다. 이러한 과대 추정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 이외의 다른 능력들을 통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측이 용이한 학력이나 연령 등의 변수는 통제하겠지만 이들 외의 능력 관련 지표를 발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500여 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별 수능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능력 요인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 시험 성적 자료의 단점은 영어 시험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관측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능력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 변수 추정도 병행할 것이다. 이 도구변수는 능력요인과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영어 능력과는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변수로 아버지의 학력과 14세 때 자란 지역을 도구변수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들 변수의 성격과 도구변수로서의 적합성 등은 실증분석을 다루는 장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능력 지표를 추가한 회귀분석이나 도구변수를 활용한 추정에서 영어 능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오게 된다면 영어 능력에 따른 프리미엄은 실제로 상당부분 다른 능력에 의한 임금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경우에는 영어 단순히 관측되는 영어 수익률을 보고 영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경우라면 영어 이외의 인적자본 투자를 늘린다거나 노동 시장에서 영어 이외의 능력 지표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인적자본 투자와 인재 선발 방식이 될 것이다.

2. 영어능력과 임금: 인적자본 대 선별기능

영어 능력과 임금의 관계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론 대 선별 (screening) 이론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논쟁이 매우 잘 적용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¹⁾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영어 능력은

1) 인적자본과 선별 기능 논쟁은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경제학에서 상당히 많은 실증연구들이 학교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인적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후일의 소득을 상당히 증가시킴을 시사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년 더 교육을 받으면 연간 소득이 5~11%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선별이론에 따르면 교육을 몇 년 더 받는 것이, 특히 대학교 수준에서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선별 기제로만 기능할 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신호를 고용주가 될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대입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이어서 학위를 따냈다는 사실을 통해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 이론이 암시하는 바는 교육이 생산성을 높여 높

중요한 형태의 인적자본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선별 이론에 따르면 영어 능력은 자신의 생산성을 고용주들에게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보편화와 함께 영어 능력이 갖는 선별 이론과 인적자본이론의 두 측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85%에 가까운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대학 졸업장 자체가 주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가 약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학졸업장이 주는 신호효과가 약해진 상황에서 기업은 다른 신호 지표를 활용할 유인이 커진다. 여기서 영어능력은 매우 설득력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영어 능력이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영어 능력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영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인적자본 이론과 선별 이론 중 어느 한쪽만을 진실로 보기는 어렵고 영어 능력은 선별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 동시에 보다 폭 넓은 의사소통 능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영어 능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원인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는지 확실히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느냐는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어가 직무의 필요도에 관계없이 선별 기능으로만 작용한다면 이는 사회전체적인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영어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직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다면 비효율적인 과잉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영어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대가이다. 즉 영어 능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영어에 투자하는 대신 자기 미래 직무와 관련한 인적자본 축적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영어를 통한 선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별과정을 통과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영어 학습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결과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인적자원 투자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영어 능력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선별 기능에 치우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 능력에 따른 높은 임금을 인적자본 효과로 설명해야 할지 선별 효과로 설명해야 할지는 본고의 분석만으로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뒤의 실증 논의에서도 출되는 영어 프리미엄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인적자본 이론과 선별 이론을 모두 적용해 가면서 가능한 한 신중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

은 임금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능력에 대한 신호로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III. 영어능력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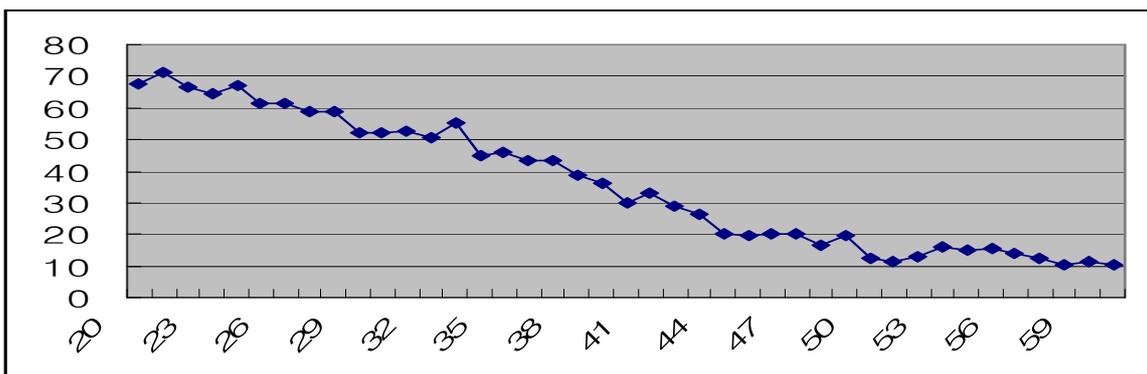
이제 본격적인 실증분석으로 들어가 우선 영어 능력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금전적 투자라는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적 특성과 가정 및 지역 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영어 능력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1. 연령과 학력

영어 능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학력과 연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정규 학교교육 뿐 아니라 일반학원이나 어학 전문 학원 등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40대 이후의 세대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영어교육은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 능력의 바탕이 되는 영어교육을 받은 정도는 정규교육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영어능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낮은 연령대일 수록 영어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연령별로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 진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연령 별 영어 능력은 부록 참조) 영어 능력과 연령사이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 회화능력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일상회화 정도는 가능하다, 외국인과 업무상 논의가 가능하다,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하다 등으로 답한 사람의 비중은 [그림 1]과 같이 20대의 70% 가량에서 50대의 10% 가량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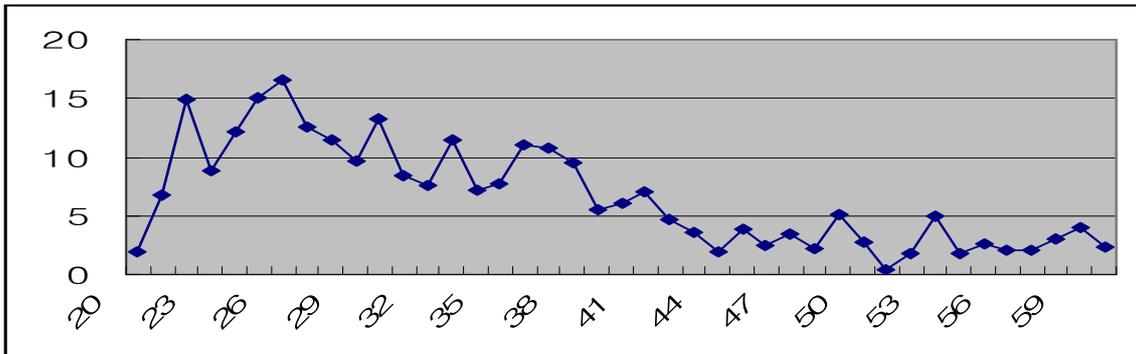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회화능력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이상)



외국인과 업무가 가능한 이상 능력을 가진 사람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42세 이상에서는 5% 미만인데 비해 20대에는 15%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관측치 수가 200미만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과 영어 능력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는 관측이다.

[그림 2] 연령별 업무기능이상 회화 능력자의 비중



그렇다면 영어능력 습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연령과 학력의 중요도를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자. 영어 능력의 향상은 학교 정규교육과 영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교육연수, 연령 및 연령제곱을 기본적인 설명변수로 하였다.

한편 선형적으로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영어 능력이 더 낫다고 하기 어렵지만 성(性)도 영어 실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일 수 있다. 영어 능력의 성별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들은 영어 시험 성적 자료일 것이다. 현재 이런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교육고용패널에 의하면 2004년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여학생들쪽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²⁾ 이런 점수 차이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본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영어 능력 결정 요인에 대한 탐색에 있어 영어 능력 습득에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선천적인 언어 습득 능력에 남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쪽이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남녀 중 어느 쪽이 영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부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남성 여성 중 어느 쪽이 언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남성 더미 변수도 추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직접 관측될 수는 없지만 영어 능력에는 영어 학습 열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학습 열의를 대변하는 변수로 영어 시험을 본 경험을 들 수 있다. 학습 열의가 있다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그 성적을 취업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bit 회귀분석 결과 추정된 계수들은 <표 1>과 같이 예상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

2) 인문계 학생 중 영어 수능점수 백분위 점수 자료가 있는 여학생 800명의 평균은 47.6점이었고 남학생 987명의 평균은 43.3점이었다.

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토플이나 토익시험을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회화, 독해, 작문 등 모든 부분에서 약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편 학력과 연령을 통제된 후에도 남성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연수의 평균인 고졸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이 1년 증가하면 약간의 회화가 가능한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자평할 확률은 7.5% 가량 올라가며 43세의 연령에서 연령이 1살 증가할 때 약간의 회화가 가능한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자평할 확률은 3.3% 정도 떨어지고 있다.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영어회화가 어느 정도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5%p 가량이나 높다.

한편 다른 능력들에 비해 독해 능력에서 교육연수나 시험여부 더미 변수의 계수가 다소 높은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된다고 평가할 확률은 교육연수가 1년 늘어날 때 9%p 올라가며, 토익 토플 등의 영어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독해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5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법과 독해 중심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영어능력 자기 평가 결정요인

교육연수	회화		독해		작문	
	0.303 (44.81)**	0.287 (41.95)**	0.315 (45.99)**	0.302 (43.57)**	0.306 (43.63)**	0.289 (40.66)**
연령	-0.133 (25.50)**	-0.13 (25.09)**	-0.14 (26.90)**	-0.138 (26.59)**	-0.149 (27.71)**	-0.146 (27.28)**
연령제곱	0.001 (18.11)**	0.001 (18.02)**	0.001 (18.77)**	0.001 (18.72)**	0.001 (20.49)**	0.001 (20.40)**
남성	0.192 (6.34)**	0.174 (5.69)**	0.172 (5.66)**	0.156 (5.09)**	0.195 (6.31)**	0.176 (5.66)**
시험여부		1.255 (10.78)**		1.357 (9.03)**		1.009 (11.13)**
Constant	-1.098 (10.27)**	-0.99 (9.26)**	-0.833 (7.64)**	-0.744 (6.82)**	-1.006 (9.42)**	-0.891 (8.36)**

주: 영어 능력이 각 영역에서 약간은 된다고 자평할 때 1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에 대한 Probit 추정이며 관측치수는 11855

괄호 안은 z-값이며 모든 계수들은 1%에서 유의

그런데 영어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개인적 능력이나 성실도 등은 잘 관측되지 않아 교육에 의한 영어실력 향상 정도의 측정에서 과다 측정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개인적 능력이나 성실도가 적절한 변수를 통해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지표로 대졸자로 국한하자면 개인별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KLIPS 자료에서 개인별 수능점수는 일부 응답자들만 점수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연도별 난이도

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 범위는 개인적 능력이나 성실도에 대한 매우 부정확한 대리변수가 될 것이다.

수능점수의 경우 시험을 치른 연도별로 다른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바람직한데,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가 연도별 난이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별 수능 백분위 점수를 직접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출신 학교 및 학과 점수를 활용해야 한다. 표본이 매우 한정된다는 근본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1994년에서 2003년 사이 10년 간 수능시험을 치른 542명에 대해서는 출신 학과별 백분위 점수를 찾아내어 KLIPS 자료와 결합할 수 있다. 이 한정된 표본에 대해서는 수능 백분위 점수를 능력이나 영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학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수능 백분위 점수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주관적인 회화, 독해, 작문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능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주관적인 영어 능력평가도 긍정적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계효과는 수능백분위 점수의 표본평균인 77에서 1%p 올라갈 경우 자신의 회화능력이 일상 화화가 가능한 정도 이상이 된다고 평가할 확률은 0.2%p 정도 상승하고 있다.

한편 수능백분위 점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교육연수와 연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고 있다. 물론 수능백분위 점수가 관측되는 사람들의 경우 교육연수는 높고 연령은 젊은 편이므로 교육과 연령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작고 다양한 학력과 연령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수능점수가 고려될 때 학력이나 연령의 중요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이제 주관적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시험 점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설문 문항은 토플과 토익 시험 모두 시험 여부와 연도 점수 등을 묻고 있지만 토플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 50명 미만이며 서로 다른 시험을 표준화하는 작업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토익점수를 종속변수로 삼기로 한다. 토익 시험을 치른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에도 못 미치는 44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본 수는 크게 줄어든다.

토익 시험을 치렀다고 답한 사람들 중 수능 점수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 표본은 더욱 줄어들어서 136명에 불과하다. 이런 한계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영어 점수가 교육수준이 높고 수학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높다는 사실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수능점수의 경우 백분위 점수 1%p의 상승이 토익점수 약 3점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는 학력과 수능점수로 대변되는 능력 내지는 성실도가 영어실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 보면 주관적 평가로 보든 객관적 평가로 보든 영어 능력에 있어 학력과 연령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영어 교육에 대한 적극성이나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 등도 영어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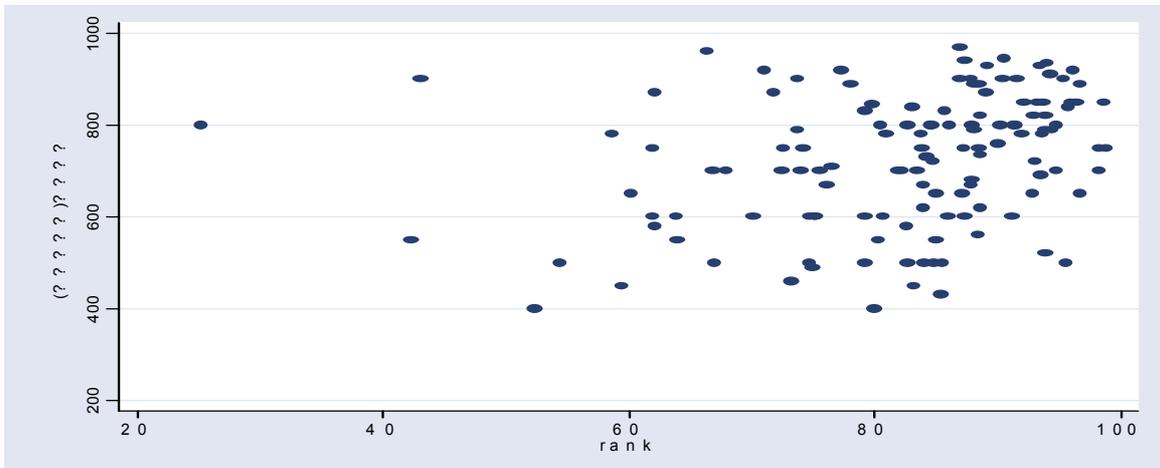
〈표 2〉 수능백분위 점수와 영어 능력

	회화	독해	작문	토익점수	토익점수
영어 능력	0.678 (3.43)**	1.206 (3.22)**	0.581 (3.24)**		
수능점수	0.010 (2.13)*	0.016 (3.21)**	0.013 (3.08)**		2.935 (2.89)**
교육연수	0.093 (1.41)	0.169 (2.22)*	0.101 (1.60)	21.095 (4.04)**	15.709 (1.03)
연령	-0.145 (1.11)	-0.202 (1.40)	-0.327 (2.50)*	5.967 (0.81)	15.939 (0.64)
연령제곱	0.002 (1.14)	0.003 (1.27)	0.004 (2.34)*	-0.102 (0.97)	-0.300 (0.83)
남성	0.173 (1.26)	0.178 (1.11)	0.236 (1.79)	6.295 (0.38)	28.644 (1.07)
상수	0.971 (0.43)	0.840 (0.34)	3.858 (1.71)	271.607 (2.42)*	7.908 (0.02)
관측치수	542	542	542	446	130
R2				0.05	0.10

주: 회화, 독해, 작문은 모두 영어 능력이 각 영역에서 약간은 된다고 자평할 때 1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에 대한 Probit 추정이며, 토익점수는 OLS 추정임

괄호 안은 z-값 혹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그림 3] 수능백분위 점수와(가로축) 토익시험 점수(세로축)



2. 가정환경 변인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 능력과 관련된 변수들과 영어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개인의 능력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제반 환경 요인들도 영어 능력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정환경이나 주변 지역 환경이 영어와 접근도가 높은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

람과 비교한다면 유사한 능력을 지녔더라도 더 나은 영어 능력을 지니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정환경 변인으로 14세 당시의 환경 지표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영어 교육 시작할 연령을 대체로 중학교 입학으로 본다면 14세는 영어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4세 거주 지역과 영어 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화 독해 작문 등 모든 영역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또한 토익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비중 역시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에 따른 영어 능력의 차이는 서울과 기타 지역 뿐 아니라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지역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 등 7개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영어 능력이 경기 강원 등 도 지역이나 충청 이남의 대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14세 거주 지역별 영어 능력 차이

	관측치수	회화	독해	작문	토익 여부
서울	1884	49.9%	54.6%	44.0%	7.4%
부산	813	39.4%	48.1%	37.5%	6.9%
대구	536	39.0%	50.4%	38.8%	6.9%
인천	237	46.4%	43.9%	35.9%	4.6%
광주	422	48.6%	51.4%	45.7%	3.6%
대전	303	40.6%	48.5%	40.3%	5.3%
울산	188	41.5%	54.3%	40.4%	7.4%
경기	1312	36.2%	40.1%	31.3%	2.7%
강원	477	26.6%	28.1%	22.4%	1.3%
충북	468	25.4%	32.3%	19.0%	2.6%
충남	821	15.0%	15.7%	11.7%	0.6%
전북	900	30.0%	32.1%	26.6%	2.2%
전남	986	20.5%	21.2%	14.0%	2.1%
경북	1183	19.8%	26.4%	19.1%	1.8%
경남	1125	26.3%	29.3%	24.3%	3.5%
제주	32	34.3%	34.4%	31.3%	0.0%

이외에 부모의 학력도 영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영어 교육을 강조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영어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 4>에서는 교육이나 연령 등의 개인 변인 외에도 14세 때의 거주 지역과 아버지의 학력이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Probit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 변수들은 14세 때 거주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아버지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예상과 부합되게 교육이나 연령 등의 개인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14세 때 거주

지역과 아버지의 학력은 영어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는 회화 독해 작문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 여부의 경우 독해와 작문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교육연수나 연령 등 변수의 계수들은 이들 가정환경 변수들의 포함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4〉 가정환경과 영어 능력

	회화		독해		작문	
교육연수	0.298 (43.56)**	0.283 (40.96)**	0.309 (44.66)**	0.297 (42.47)**	0.299 (42.25)**	0.283 (39.54)**
연령	-0.127 (23.96)**	-0.125 (23.68)**	-0.134 (25.32)**	-0.133 (25.12)**	-0.142 (26.04)**	-0.140 (25.75)**
연령제곱	0.104 (16.84)**	0.104 (16.84)**	0.108 (17.50)**	0.108 (17.54)**	0.122 (19.13)**	0.121 (19.14)**
남성	0.196 (6.45)**	0.177 (5.80)**	0.176 (5.76)**	0.160 (5.19)**	0.200 (6.47)**	0.182 (5.82)**
시험여부		1.235 (10.53)**		1.327 (8.78)**		0.978 (10.73)**
부 학력	0.305 (7.59)**	0.289 (7.11)**	0.275 (6.64)**	0.261 (6.22)**	0.307 (7.66)**	0.290 (7.14)**
대도시	0.046 (1.51)	0.031 (0.99)	0.103 (3.32)**	0.089 (2.85)**	0.100 (3.22)**	0.085 (2.70)**
상수	-1.230 (11.25)**	-1.112 (10.17)**	-0.978 (8.77)**	-0.880 (7.88)**	-1.162 (10.64)**	-1.038 (9.50)**

주: 영어 능력이 각 영역에서 약간은 된다고 자평할 때 1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에 대한 Probit 추정이며 관측치수는 11855

괄호 안은 z-값이며 모든 계수들은 1%에서 유의

결과적으로 영어 능력은 개인의 학력과 학업 능력, 그리고 영어와 친숙해 지기 쉬운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영어 능력이 노동시장의 성과인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본다.

IV. 영어능력과 임금

이제 영어점수 혹은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대변되는 영어 능력과 임금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영어능력은 더 높은 생산성, 더 나은 네트워크 등의 경로를 통해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직무의 영어 필요성과 임금

영어 능력과 임금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우선 과연 영어가 필요한 직무에서 임금이 높은 지에 대해 살펴보자. 영어능력이 더 높은 임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이 필요한 업무가 존재하며, 그 업무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가 필요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에 비해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가 바로 영어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과연 어느 정도 있으며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얻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KLIPS 설문에는 입직 시 영어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과 업무 상 영어 중요도 등에 대한 질문이 있다.

우선 <표 5>에서도 보듯이 자신의 업무에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는 질문에는 회화의 경우 89%가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많이 요구된다는 응답은 모두 5%미만이다. 다만 일자리의 영어 요구도는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이 44세 가량인데 비하여 어느 정도 이상 요구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8살 아래인 36세 정도이다. 평균적으로 대략 1970년생 이후에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업무의 영어능력 요구도

	회화		독해		작문	
	빈도수(비중)	연령	빈도수(비중)	연령	빈도수(비중)	연령
거의요구되지 않음	5684 (88.9)	44.0	5675 (88.8)	44.03	5815 (91.0)	43.85
조금요구됨	561 (8.8)	44.0	557 (8.7)	36.02	437 (6.8)	35.71
많이 요구됨	146 (2.3)	43.9	437 (2.5)	35.71	139 (2.2)	36.96

이러한 직무의 영어 요구는 그대로 임금에도 반영되고 있다. <표 6>은 기본적인 Mincer 임금 방정식에 직무 상 영어 독해 능력이 요구된다는 사람들에 대해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1년 이후의 홀수 연도에 대해 회귀식을 추정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결합하여 추정하기도 했다. 추정 결과는 영어 독해능력이 조금 혹은 많이 요구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07년의 경우 27.4%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2001년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아진 것이다. 자신의 업무에서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답한 사람들이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의 변인을 통제하고도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표 6> 업무의 영어능력 요구와 임금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독해요구	0.213 (7.11)**	0.164 (5.97)**	0.240 (9.54)**	0.274 (12.03)**	0.165 (13.83)**
교육연수	0.060 (17.96)**	0.068 (21.35)**	0.071 (23.22)**	0.074 (25.67)**	0.064 (46.15)**
연령	0.099 (14.76)**	0.095 (16.33)**	0.090 (17.63)**	0.088 (21.36)**	0.085 (32.05)**
연령제곱	-0.097 (13.25)**	-0.096 (14.94)**	-0.097 (16.83)**	-0.097 (20.14)**	-0.001 (28.71)**
남성	0.428 (21.34)**	0.418 (22.39)**	0.422 (23.77)**	0.423 (26.71)**	0.380 (46.97)**
상수	1.258 (8.18)**	1.520 (11.60)**	1.813 (15.79)**	1.942 (21.20)**	1.789 (30.11)**
관측치수	2330	2789	3120	4334	14122
R2	0.40	0.41	0.44	0.42	0.36

주: 회화, 독해, 작문은 모두 영어 능력이 각 영역에서 약간은 된다고 자평할 때 1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에 대한 Probit 추정이며, 토익점수는 OLS 추정임

괄호 안은 z-값 혹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이러한 영어 능력의 중요도와 임금 사이의 관계는 입직 시에 영어가 요구되었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표 7>에서 보듯이 입직 시 영어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답한 사람은 매우 적지만 이 집단의 임금이 입직 시 영어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과 업무에서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입직 시 영어가 중요했던 집단이 실제로 업무 상 영어가 필요한 집단이라면, 이 집단의 임금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임금에 비해 30%~40% 높다는 사실은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입직시 영어 중요도와 임금

연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빈도비중 (A/A+C)	임금비율 (B/D)
	빈도 (A)	평균임금(B)	빈도 (C)	평균임금(D)		
2001	152	176.47	1450	133.71	9.5%	1.32
2002	157	189.38	1604	143.17	8.9%	1.32
2003	183	227.75	1767	153.24	9.4%	1.49
2004	174	220.44	1842	159.27	8.6%	1.38
2005	217	240.44	2030	166.43	9.7%	1.44

입직 시 영어 능력 요구도와 임금과의 관계는 입직 시 영어 평가 여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영어를 입직 시 고려했다는 응답은 10% 미만이다. 그런데 <표 8>에서 보듯이 입직 시 영어시험을 요구받았던 사람들의 임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략 40%~50%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연도가 지나면서 이런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07년 사이 영어평가 유무에 따른 임금 차이는 40%에서 65%로 증가해 왔다.

<표 8> 입직시 영어평가 여부와 임금

연도	영어평가 있음		영어 평가 없음		빈도비중 (A/A+C)	임금비율 (B/D)
	빈도 (A)	평균임금(B)	빈도 (C)	평균임금(D)		
2001	126	186.37	1476	133.62	7.9%	1.39
2002	132	206.59	1629	142.49	7.5%	1.45
2003	151	244.10	1799	153.19	7.7%	1.59
2004	137	229.25	1879	159.84	6.8%	1.43
2005	170	261.11	2077	166.41	7.6%	1.57
2007	427	294.11	3907	178.31	10.3%	1.65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직 시 영어 평가가 있었던 직업을 가진 집단은 교육 연수나 연령을 통제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2001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이들 두 집단의 임금격차는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선택하려는 노력은 상당한 잠재적 수익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9> 입직시 영어평가 유무와 임금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영어평가	0.182 (5.25)**	0.198 (6.44)**	0.325 (11.34)**	0.345 (13.18)**	0.168 (12.03)**
교육연수	0.063 (18.31)**	0.068 (21.68)**	0.073 (24.00)**	0.075 (26.75)**	0.066 (46.75)**
연령	0.098 (13.81)**	0.094 (15.84)**	0.089 (17.01)**	0.086 (20.97)**	0.087 (31.41)**
연령제곱	-0.096 (12.34)**	-0.096 (14.53)**	-0.095 (16.18)**	-0.095 (19.76)**	-0.001 (28.24)**
남성	0.417 (19.54)**	0.429 (22.49)**	0.407 (22.57)**	0.419 (26.50)**	0.376 (44.32)**
상수	1.259 (7.76)**	1.554 (11.67)**	1.835 (15.68)**	1.969 (21.55)**	1.743 (28.24)**
관측치수	1981	2474	2957	4332	12548
R2	0.41	0.43	0.45	0.42	0.38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입직에서 영어평가 여부와 마찬가지로 승진 시 영어를 평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승진 시 영어평가를 받는 사람의 비중은 입직 시 영어 평가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승진 시 영어 평가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는 입직 시 영어 평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승진시 영어 여부와 임금

연도	영어평가 있음		영어 평가 없음		빈도비중 (A/A+C)	임금비율 (B/D)
	빈도 (A)	평균임금(B)	빈도 (C)	평균임금(D)		
2001	90	189.28	1512	134.70	5.6%	1.41
2002	95	208.74	1666	143.79	5.4%	1.45
2003	107	224.07	1843	156.52	5.5%	1.43
2004	102	236.27	1914	160.73	5.1%	1.47
2005	127	258.54	2120	168.49	5.7%	1.53

종합적으로 보면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가 많지는 않아서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그 직무에서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직무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어가 요구되는 직무가 학력이나 연령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30~40% 가량, 이들 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도 약 30%에 가까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를 영어 능력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영어가 업무에 필요하다는 사람들이나 입직이나 승진에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임금이 높은 만큼은 영어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뒤에서 보듯이 순수하게 영어 능력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다른 영어 능력지표들과 임금 사이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2. 개인의 영어 능력과 임금

우선 주관적인 영어 능력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표 11>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홀수 연도에 대해 기본적인 Mincer 방정식에 회화 독해 작문 더미 변수를 추가한 회귀식에 대한 결과이다. 각 연도별 회귀식에 5개년도의 자료를 결합한 표본에 대한 회귀식 추정결과도 추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회화와 독해 능력이 있는 집단의 임금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영어 능력과 임금 (종속변수 log(월급))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회화	0.073	0.066	0.114	0.092	0.046
	(2.17)*	(2.10)*	(3.81)**	(3.13)**	(2.71)**
독해	0.087	0.129	0.130	0.111	0.118
	(2.51)*	(3.95)**	(4.15)**	(3.64)**	(6.71)**
작문	0.029	0.008	0.004	0.020	0.003
	(0.82)	(0.25)	(0.12)	(0.69)	(0.15)
교육연수	0.051	0.056	0.057	0.065	0.052
	(15.09)**	(17.30)**	(17.19)**	(19.78)**	(28.57)**
연령	0.104	0.105	0.098	0.093	0.091
	(19.83)**	(21.63)**	(21.69)**	(22.10)**	(33.07)**
연령제곱	-0.103	-0.107	-0.105	-0.101	-0.001
	(18.72)**	(20.53)**	(20.92)**	(20.78)**	(31.35)**
남성	0.423	0.438	0.433	0.423	0.406
	(23.66)**	(25.72)**	(26.14)**	(26.56)**	(42.90)**
상수	1.234	1.383	1.729	1.899	1.779
	(9.91)**	(12.42)**	(16.88)**	(20.66)**	(27.85)**
관측치수	2942	3411	3586	4334	17343
R2	0.41	0.43	0.45	0.41	0.27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작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결과는 회화 독해 작문 능력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에서 오는 다중 공선성 문제에 기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영어능력을 회화, 독해, 작문, 토익 시험 여부 등의 더미 변수로 각각 나누어 영어 능력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보면 주관적인 영어실력이 높거나 토익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학력이나 연령 등을 통제하고도 17~19%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영어 실력 → 영어가 요구되는 직무 → 높은 임금이라는 인과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표 12> 주관적 영어능력 평가와 임금 (2007년, OLS)

	회화	독해	작문	토익여부
영어능력	0.183 (9.71)**	0.192 (9.98)**	0.164 (8.54)**	0.169 (5.26)**
교육연수	0.069 (21.68)**	0.067 (20.70)**	0.071 (22.31)**	0.081 (28.64)**
연령	0.091 (21.80)**	0.092 (21.92)**	0.090 (21.55)**	0.088 (20.87)**
연령제곱/100	-0.100 (20.51)**	-0.100 (20.60)**	-0.099 (20.32)**	-0.096 (19.62)**
남성더미	0.422 (26.47)**	0.424 (26.61)**	0.422 (26.42)**	0.420 (26.10)**
상수	1.901 (20.65)**	1.893 (20.59)**	1.916 (20.76)**	1.886 (20.33)**
관측치 수	4334	4334	4334	4334
R2	0.41	0.41	0.41	0.40

다음으로 객관적인 영어실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토익점수를 기본 임금방정식에 추가해 보았다. 추정결과는 토익점수가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일관된 현상이며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 연도를 결합하여 OLS로 추정한 결과는 토익점수의 계수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토익점수가 임금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기업이 일정 점수 이상의 토익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일정점수 이상”의 점수는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이 시험에 적응하는 형태의 학습을 통해 실제 직무에 필요한 영어 능력의 향상 없이도 높은 시험 성적을 거두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어 프리미엄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토익점수와 임금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표 13〉 토익점수와 임금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토익점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19)	(0.69)	(0.22)	(1.38)	(2.34)*
교육연수	0.037	0.042	0.050	0.053	0.035
	(0.73)	(1.91)	(1.72)	(2.64)**	(2.22)*
연령	0.409	0.385	0.290	0.198	0.261
	(5.90)**	(7.80)**	(6.83)**	(5.52)**	(10.18)**
연령제곱	-0.442	-0.424	-0.324	-0.215	-0.003
	(5.17)**	(6.69)**	(5.83)**	(4.34)**	(8.43)**
남성더미	-0.004	0.029	0.113	0.160	0.080
	(0.03)	(0.26)	(1.35)	(2.16)*	(1.52)
상수	-4.505	-3.590	-1.509	0.261	-0.993
	(3.06)**	(3.86)**	(1.89)	(0.41)	(1.96)
관측치 수	98	149	191	281	596
R2	0.52	0.58	0.48	0.39	0.42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토익 점수와 토익시험을 치렀는지의 여부까지를 포함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 학력과 연령 그리고 남성 더미 변수로 통제하고 나면 모든 연도에서 토익 시험을 치렀는지 여부와 토익점수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어시험을 치렀다거나 영어시험을 치른 경우 높은 성적을 거둔 것이 임금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개 연도를 결합한 자료에서는 토익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 토익 점수의 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역시 토익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사이에서 점수와 임금사이에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4> 토익 시험 여부 및 시험 점수와 임금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토익여부	0.022 (0.11)	0.207 (1.28)	0.141 (0.93)	-0.014 (0.10)	0.236 (2.28)*
토익점수	0.000 (0.39)	-0.000 (1.19)	-0.000 (0.01)	0.000 (1.41)	-0.000 (2.11)*
교육연수	0.064 (21.94)**	0.071 (25.14)**	0.075 (26.41)**	0.081 (28.56)**	0.065 (41.49)**
연령	0.100 (18.98)**	0.098 (20.22)**	0.092 (20.17)**	0.088 (20.86)**	0.087 (31.70)**
연령제곱	-0.099 (17.87)**	-0.101 (19.19)**	-0.098 (19.46)**	-0.096 (19.62)**	-0.001 (30.09)**
남성	0.422 (23.37)**	0.438 (25.39)**	0.434 (25.75)**	0.420 (26.12)**	0.405 (42.57)**
상수	1.229 (9.79)**	1.417 (12.58)**	1.722 (16.55)**	1.889 (20.36)**	1.760 (27.41)**
관측치 수	2942	3411	3586	4334	17343
R2	0.40	0.42	0.43	0.40	0.26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지금까지 주관적 객관적 영어 능력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영어 능력에 따른 임금효과를 일종의 영어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 능력과 상관관계를 가진 다른 능력 요소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영어 프리미엄은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이제 능력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능력과 성실도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수능백분위 점수를 회귀식에 포함시켜 보자.

수능 점수는 매우 좋은 통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관측치 수가 적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하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적은 관측치 수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거의 모든 연도에서 영어 능력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능점수는 2005년 이후 표본과 5개 연도 자료를 결합한 표본에서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능점수 포함 여부에 따라 영어 능력 변수들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하는 현상은, 실제로 능력 변수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을 때 영어 프리미엄은 과대 추정되리라는 추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영어능력과 임금 (수능 백분위 점수 통제)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회화	-0.250	-0.049	-0.042	-0.018	-0.066
	(1.41)	(0.39)	(0.43)	(0.21)	(0.65)
독해	0.113	-0.037	0.126	0.041	0.028
	(0.58)	(0.28)	(1.06)	(0.40)	(0.26)
작문	0.153	0.075	-0.029	0.088	0.082
	(1.01)	(0.67)	(0.32)	(1.21)	(0.93)
수능점수	0.001	0.004	0.010	0.008	0.006
	(0.20)	(1.54)	(4.95)**	(5.17)**	(3.25)**
교육연수	-0.000	0.050	0.001	0.017	-0.006
	(0.01)	(1.70)	(0.03)	(0.84)	(0.22)
연령	0.280	0.218	0.239	0.211	0.210
	(3.72)**	(4.60)**	(6.20)**	(6.50)**	(5.21)**
연령제곱	-0.282	-0.234	-0.278	-0.244	-0.002
	(2.96)**	(3.92)**	(5.63)**	(5.78)**	(4.44)**
남성더미	0.031	0.036	0.152	0.181	0.169
	(0.31)	(0.53)	(2.76)**	(4.08)**	(3.12)**
상수	-1.554	-0.688	-0.481	0.079	0.066
	(1.12)	(0.82)	(0.63)	(0.13)	(0.09)
관측치 수	118	189	238	327	856
	0.48	0.40	0.37	0.37	0.16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이제 영어 능력의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토익 시험과 수능백분위 점수 등 두 점수를 모두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시험을 치렀다거나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임금이 높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5개 연도 결합자료에서 토익을 치른 사람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현상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수능백분위 점수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던 회귀분석과는 다른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수능점수 포함 여부에 따라 영어 능력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 현상은 주관적인 영어실력 평가나 객관적인 토익성적을 영어 능력 변수로 삼았을 때나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수능점수가 2005년과 2007년 자료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결과도 공통된 현상이다. 이는 영어 능력이 수능점수로 나타나는 일반적 학업 능력과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표 16〉 영어점수와 임금 (수능 백분위 점수 통제)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토익여부	-0.006	0.269	0.183	0.085	0.523
	(0.01)	(0.98)	(0.71)	(0.42)	(2.05)*
토익점수	0.000	-0.000	-0.000	0.000	-0.001
	(0.36)	(0.95)	(0.10)	(0.37)	(1.97)*
수능점수	0.005	0.035	0.140	0.175	0.006
	(0.05)	(0.52)	(2.59)*	(4.02)**	(3.57)**
교육연수	0.001	0.004	0.009	0.007	-0.002
	(0.17)	(1.72)	(4.57)**	(4.98)**	(0.08)
연령	-0.007	0.049	-0.003	0.017	0.210
	(0.17)	(1.70)	(0.11)	(0.84)	(5.25)**
연령제곱	0.276	0.218	0.240	0.210	-0.002
	(3.69)**	(4.64)**	(6.36)**	(6.62)**	(4.48)**
남성	-0.273	-0.233	-0.276	-0.240	0.167
	(2.88)**	(3.95)**	(5.73)**	(5.82)**	(3.09)**
상수	-1.431	-0.737	-0.359	0.161	-0.003
	(1.03)	(0.89)	(0.48)	(0.27)	(0.00)
관측치수	118	189	238	327	856
R2	0.47	0.40	0.39	0.39	0.17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이상의 결과는 인적자본 이론과 선별 이론이라는 서로 다른 틀에서 각기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인적자본 이론의 틀에서 해석하자면 영어 능력은 수능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두 변수를 포함할 경우 영어 능력 변수만을 포함시킨 회귀분석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선별 이론의 틀에서 보자면 고용하는 입장에서 학교나 학과 등을 통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고 그 정보를 고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영어 능력이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유인은 적어지게 된다.

어느 이론을 적용하든지 영어 능력과 일반 학업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같은 회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능백분위 점수와 토익 점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두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두 점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130개 관측치에서 얻은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276이다. 회화, 독해, 작문 가능 더미 변수와 수능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이보다 더 낮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와 수능점수와 영어 능력 사이의 높지 않은 상관계수를 종합하여 해석하자면 노동시장에서 수능점수가 높은 사람이 영어 능력도 좋은 경향이 약간 있기는 하나, 그 보다는 수능점수가 낮고 영어 능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수능점수가 높고 영어 능력이 낮은 사람의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인적자본 이론의 틀에서 보자면 노동시장에서 수능 백분위 점수로 대변되는 일반 능력(general skill)이 영어 능력이라는 특정 능력(specific skill) 보다는 중요성을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어 능력을 갖춘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는 데 유리하지만 영어 능력만으로는 높은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도 말 할 수 있다.

선별 이론의 틀에서 보자면 노동시장에서 출신 대학이나 전공이 영어능력이나 영어 점수보다 더 우선적인 선별기능을 갖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업 후보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능력 향상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점수와 토익점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영어 능력이 보조적인 선별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약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더 깊이 다루기는 어렵지만 향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한편 영어능력은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정보가 있는 사람들만을 표본으로 하는 회귀분석과 학업을 마쳤지만 취업상태는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자, 수료자, 중퇴자들을 포함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임금의 자연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을 통해 영어 능력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경우 연도 별 관측치 수는 9730에 이르고 5년 자료를 결합할 경우 53073에 이르는 관측치를 얻을 수 있다.

TOBIT 분석결과는 OLS 분석과 유사하게 교육연수와 연령 성 더미 등 기본적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자신이 평가하는 영어 능력의 경우 회화나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영어능력과 임금 (TOBIT)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회화	0.501 (1.78)	0.764 (2.95)**	0.443 (1.77)	0.661 (3.12)**	0.421 (3.62)**
독해	0.194 (0.66)	0.306 (1.14)	0.538 (2.07)*	0.083 (0.37)	0.468 (3.87)**
작문	-0.406 (1.38)	-0.393 (1.45)	-0.062 (0.24)	0.431 (1.97)*	-0.577 (4.75)**
교육연수	-0.001 (0.03)	-0.011 (0.38)	0.026 (0.93)	0.011 (0.46)	0.076 (6.03)**
연령	0.822 (21.30)**	0.692 (19.80)**	0.546 (16.30)**	0.306 (11.14)**	0.639 (40.01)**
연령제곱	-0.886 (21.85)**	-0.792 (21.21)**	-0.684 (18.78)**	-0.475 (15.75)**	-0.007 (42.98)**
남성더미	2.225 (15.40)**	2.395 (17.75)**	2.576 (19.52)**	2.611 (23.47)**	2.048 (33.38)**
상수	-21.213 (21.87)**	-16.708 (19.34)**	-12.827 (15.70)**	-5.242 (7.93)**	-16.949 (42.71)**
관측치수	9730	9730	9730	9730	53073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그럼 이제 자기 평가가 아닌 토익 시험 여부 및 토익 점수와 임금사이의 관계를 TOBIT 추정 방법으로 살펴보자. 2005년에는 토익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 연도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다. 반면 토익 점수 자체는 부호가 음수인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OLS의 경우와 유사하게 토익점수 자체가 임금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8> 토익 시험 여부 및 시험 점수와 임금 (TOBIT)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1-2005
토익여부	1.079 (0.65)	2.188 (1.51)	3.969 (2.88)**	1.317 (1.15)	2.092 (3.02)**
토익점수	-0.002 (1.00)	-0.003 (1.50)	-0.005 (2.41)*	0.000 (0.01)	-0.005 (4.77)**
교육연수	0.029 (1.15)	0.043 (1.80)	0.092 (3.91)**	0.084 (4.19)**	0.117 (10.87)**
연령	0.808 (21.10)**	0.674 (19.41)**	0.530 (15.90)**	0.290 (10.62)**	0.619 (39.01)**
연령제곱	-0.873 (21.69)**	-0.776 (20.89)**	-0.668 (18.45)**	-0.459 (15.31)**	-0.007 (42.18)**
남성	2.245 (15.52)**	2.415 (17.86)**	2.586 (19.55)**	2.617 (23.45)**	2.076 (33.81)**
상수	-21.102 (21.77)**	-16.691 (19.29)**	-12.969 (15.82)**	-5.483 (8.27)**	-16.765 (42.30)**
관측치 수	9730	9730	9730	9730	53073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한편 수능점수를 토익 시험 유무 및 토익시험 점수와 함께 설명변수로 포함할 경우 두 시험 점수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험을 치렀는지 여부를 묻는 더미 변수는 5개 연도를 결합한 자료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능점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토익 점수의 계수가 절대값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선별 이론의 입장을 견지하자면 토익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가운데, 주된 선별 변수인 수능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보조적인 선별 변수인 영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9> 토익시험 유무 및 시험점수와 임금 (수능백분위 점수 통제)

	2001	2003	2005	2007	2001-2005
토익여부	5.040	5.561	4.422	-0.464	4.359
	(1.48)	(2.04)*	(1.85)	(0.28)	(3.07)**
토익점수	-0.006	-0.006	-0.005	0.002	-0.006
	(1.36)	(1.72)	(1.59)	(0.82)	(3.11)**
수능점수	0.042	0.035	0.050	0.041	0.014
	(1.64)	(1.68)	(2.89)**	(3.43)**	(1.43)
교육연수	-0.131	0.088	-0.214	0.164	-0.120
	(0.40)	(0.31)	(0.86)	(0.93)	(0.85)
연령	3.120	2.229	1.166	-0.036	1.823
	(5.18)**	(4.76)**	(3.04)**	(0.13)	(7.98)**
연령제곱	-3.344	-2.433	-1.191	0.069	-0.019
	(4.39)**	(4.04)**	(2.38)*	(0.19)	(6.54)**
남성더미	-3.379	-1.326	-0.240	2.512	-1.893
	(4.47)**	(2.23)*	(0.48)	(7.07)**	(6.34)**
상수	-67.808	-50.482	-24.492	-4.389	-38.532
	(5.77)**	(5.53)**	(3.25)**	(0.83)	(8.65)**
관측치수	487	487	487	487	2584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3. 인적자본이론과 선별이론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앞서 영어 능력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는 하지만 영어라고 하는 특정 분야 능력이 아닌 일반적 능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수능점수에 비해서는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영어 프리미엄이 영어 능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관측되지 않는 다른 능력과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하에서는 영어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영어 능력이 기업의 선별 과정에서 이용될 뿐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로 생각되는 직장은 대기업이다.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영어 능력을 통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임금이 기업 규모에 비례한다면 영어 프리미엄은 기업규모라는 누락변수의 영향을 대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규모 변수를 포함시킬 때 영어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0>은 기본적인 Mincer 임금방정식에 영어 능력변수와 300인 이상 대기업 재직자에 대해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영어 프리미엄이 기업규모 변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³⁾ 물론 대기업 변수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

3) 대기업 더미변수 대신 사업체의 종업원 수를 변수로 넣었을 때도 거의 같은 결과를 얻는다. 특히 영어

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 변수로 인한 영어 능력 변수 계수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기업 규모에 영어 능력에 따른 선별이 대기업을 통해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0〉 기업규모와 영어능력 (2007년)

	회화	작문	작문	직무상 독해요구	입직시 영어시험
영어 능력	0.173 (9.32)**	0.179 (9.41)**	0.149 (7.86)**	0.250 (11.07)**	0.298 (11.37)**
교육연수	0.066 (21.33)**	0.065 (20.47)**	0.069 (22.11)**	0.072 (25.35)**	0.074 (26.55)**
연령	0.092 (22.33)**	0.093 (22.41)**	0.091 (22.04)**	0.089 (21.86)**	0.087 (21.44)**
연령제곱	-0.100 (20.85)**	-0.100 (20.91)**	-0.099 (20.61)**	-0.097 (20.45)**	-0.095 (20.05)**
남성	0.416 (26.55)**	0.418 (26.67)**	0.417 (26.49)**	0.418 (26.76)**	0.415 (26.56)**
대기업더미	0.240 (12.10)**	0.237 (11.95)**	0.238 (11.94)**	0.227 (11.48)**	0.210 (10.49)**
상수	1.864 (20.59)**	1.858 (20.52)**	1.878 (20.68)**	1.903 (21.08)**	1.928 (21.34)**
Observations	4334	4334	4334	4334	4334
R-squared	0.43	0.43	0.42	0.43	0.43

물론 이 결과로 영어 능력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능력 변수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영어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관측되지 않는 능력에 의한 영어 프리미엄 과다 측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도구 변수를 통한 추정을 고려해 보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영어 능력이 다른 관측 불가능한 요소들과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영어 능력 프리미엄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능력과는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관측되지 않는 다른 임금 상승 요인들, 특히 관측되지 않는 능력과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도구변수를 통해 순수 영어 능력 프리미엄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도구변수로 고려될 수 있는 변수들은 앞서 영어 능력 결정 요인에서 고려했던 14세 당시의 거주 지역과 부모 학력 변수이다. 지역별로 개인의 능력에 편차가 있다는 가설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14세 당시 거주 지역이 임금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관측 불가능한 개인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학력의 경우도 그 영향이 자녀의 교육 연수 등을 통해 높은 임금과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자녀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연령층의 학력은 본인의 능력 외에도 재정 제약이라는

능력 변수의 계수는 더미 변수를 넣었을 때와 거의 동일하다.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도구변수로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⁴⁾

두 변수를 도구변수로 한 임금 추정 결과는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가장 영어 능력 프리미엄이 큰 2007년도 임금의 로그 값이다. 결과는 OLS 추정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어 능력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OLS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비해 영어 능력을 대변하는 제반 더미변수들의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도구 변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에 가까운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순수한 영어 능력에서 기인하는 높은 임금이라기보다는 영어 능력과 관계가 깊은 여러 보이지 않는 개인의 능력들이 작용하는 데서 오는 높은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영어능력이 갖는 선별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다른 일반 능력들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21> 주관적 영어능력 평가와 임금 (2007년, 도구변수법)

	회화	독해	작문	직무상 독해요구	입직시 영어시험
영어능력	0.007	-0.006	0.009	0.009	0.037
	(0.03)	(0.02)	(0.04)	(0.03)	(0.12)
교육연수	0.083	0.084	0.083	0.083	0.083
	(3.94)**	(3.51)**	(4.04)**	(6.97)**	(10.16)**
연령	0.086	0.086	0.086	0.086	0.086
	(9.90)**	(8.91)**	(10.44)**	(17.04)**	(20.43)**
연령제곱	-0.094	-0.094	-0.094	-0.094	-0.094
	(9.98)**	(9.22)**	(10.14)**	(16.00)**	(19.21)**
남성더미	0.424	0.424	0.424	0.424	0.423
	(25.93)**	(26.30)**	(25.91)**	(26.31)**	(25.36)**
상수	1.900	1.900	1.901	1.899	1.899
	(20.44)**	(20.31)**	(19.75)**	(19.34)**	(19.95)**
관측치 수	4334	4334	4334	4334	4334
	0.40	0.39	0.40	0.40	0.40

도구변수는 아버지 학력(대학 경험 이상)과 14세 당시 대도시 거주 여부 더미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4) 물론 더 능력 있는 부모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능력이 유전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출신 지역별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출신 지역이 능력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인맥 등을 통해 높은 임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모의 학력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영어 능력이 임금의 증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 능력이 임금 증가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업무에서 영어의 요구도가 높아지며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면 영어 능력이 더 나은 사람들의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 능력은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의 임금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영어 능력이 임금 수준이 아닌 임금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선별 이론보다는 인적자본 이론에 더 무게를 주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어가 선별 기능만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영어 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관측될 수 있다. 그러나 선별 기능이 다 한 뒤에 임금 증가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임금 수준이 아닌 임금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의 생산성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일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관측 불가능한 능력 요인과 영어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의 증가가 순수한 영어 능력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표 20>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그리고 2002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임금의 변화에 영어 능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시험 점수나 수능백분위 점수와 임금 변화 사이의 관계는 아쉽게도 관측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어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영어 능력 자기 진단 더미 변수와 영어 시험을 치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택했다.

추정 결과 독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문 능력도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0년~2005년까지의 5년간 변화보다는 2002~2007년까지의 5년간 임금변화에 영어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화보다는 독해나 작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영어 시험을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매우 높은 임금 상승을 경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발견은 2002년과 2007년 사이의 임금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영어 능력의 계수 값이 크다는 점이다. 영어능력이 장기적으로 임금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패널 자료를 축적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아야 할 과제이겠지만 적어도 최근 들어 영어 능력이 임금 결정 및 임금 증가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표 22〉 영어능력과 임금변화 (2000-2005년, 2002-2007년)

	회화		독해		작문		영어시험여부	
	05-00	07-02	05-00	07-02	05-00	07-02	05-00	07-02
영어능력	0.040	0.037	0.058	0.075	0.046	0.064	0.124	0.183
	(1.62)	(1.56)	(2.34)*	(3.14)**	(1.77)	(2.59)**	(2.41)*	(3.97)**
교육연수	0.016	0.019	0.015	0.019	0.016	0.015	0.018	0.017
	(4.43)**	(5.07)**	(3.93)**	(5.07)**	(4.39)**	(4.07)**	(5.64)**	(4.54)**
연령	-0.007	-0.027	-0.007	-0.027	-0.008	-0.026	-0.007	-0.027
	(1.05)	(4.03)**	(1.04)	(4.03)**	(1.14)	(3.90)**	(1.04)	(4.04)**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9)	(2.50)*	(0.20)	(2.50)*	(0.12)	(2.37)*	(0.18)	(2.47)*
남성	0.012	0.017	0.012	0.017	0.012	0.018	0.010	0.018
	(0.55)	(0.86)	(0.55)	(0.86)	(0.57)	(0.87)	(0.47)	(0.91)
상수	0.588	0.917	0.596	0.922	0.608	0.938	0.573	0.888
	(3.60)**	(6.17)**	(3.65)**	(6.21)**	(3.71)**	(6.30)**	(3.51)**	(5.98)**
관측치수	1797	2183	1797	2183	1797	2183	1797	2183
R2	0.10	0.11	0.10		0.10	0.12	0.10	0.12

주: 종속변수는 $\log(2005\text{년 임금}) - \log(2000\text{년 임금})$ 과 $\log(2007\text{년 임금}) - \log(2002\text{년 임금})$

괄호 안은 t-값이며, * 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

V. 맺는 말

이상에서 영어 능력의 형성과 영어 능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영어가 요구되는 직무에 있는 사람들과 영어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한된 표본에서지만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의 임금이 높은 현상은 관측되지 않는다. 또한 수능점수를 통제할 경우에 영어 점수나 주관적으로 진단한 영어 실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영어 능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영어 능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은 학력이 높고 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업무 상 영어의 업무도가 높은 직종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영어의 필요성이 더 증가한다면 영어 프리미엄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영어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된다. 이는 2007년의 영어 프리미엄이 2001년 프리미엄보다 크게 높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현재의 상태는 안정 상태로 가는 동태적 조정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이 요구된다.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영어 능력이 선별 기제로 지나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 영어 능력 향상에 가정환경 변인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정환경 조성이 어렵다면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에 따른 영어능력이 영어의 임금 프리미엄과 연결된다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영어 학습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이른바 영어로 인한 단절(English Divide)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능력과 가정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정할 수 있는 학교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직무 상 수요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현장과 연계된 정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특히 본고의 분석으로부터 정규교육에서 지역 간 영어 실력에 격차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가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영어 능력이 다른 많은 능력이나 개인의 보이지 않은 자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우선 영어 능력 자체가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영어를 선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이 선별도구로만 이용될 때 젊은이들의 인적자원 투자가 합리적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영어 능력이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어 교육 투자는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어 프리미엄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는 없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영어 교육 투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적자본이 특정부분에 과잉 투자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입직 시 영어 이외의 선발 기제 마련은 이런 면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⁵⁾ 영어 능력은 결코 비용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물론 이런 선발 기제가 영어 능력을 통한 선발 기제에 비해 비용이 크게 더 들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조건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Chiswick, Barry R., and Paul W. Miller (1995) 'The endogeneity between language and earnings: International analys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2), 246-288
- Barry R. Chiswick, Paul W. Miller (2003), The complementarity of language and other human capital: immigrant earnings in Canad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pp. 469-486.
- Chiswick, Barry R., and Paul W. Miller (2007), *Economics of Language: International Analysis*, Routledge.
- Dustmann, Christian, and Arthur van Soest (2001) 'Language fluency and earnings: Estimation with misclassified language indica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663-674.
- Dustmann, Christian, and Francesca Fabbri (2003) 'Language proficiency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of immigrants in the UK.' *Economic Journal* 113, 695-717
- Kanto Shigeki(2005),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English Use on Earnings for Japanese Domestic Workers, mimeo
- Ramberton, Donald(2002), *Economics of Language*, Edward Elgar
- Rubinstein, Ariel(2000), *Economics an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노동패널 영어 관련 설문 문항

■ _____님께서는 최근 3년간 영어 어학연수(영어캠프)를 다녀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내 영어캠프도 포함됩니다)

P**4901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 (1) 있다
- (2) 없다

※ P**4901에서 (1)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

■ 모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총 _____회

P**4902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 다녀온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2회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주십시오)

P**4903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구분(주/개월)

P**4904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총 _____주 (또는 _____개월)

■ 영어 어학연수(영어캠프)에 든 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2회 이상인 경우 각각의 비용을 합산하여 주십시오)

P**4905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P**4905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총 _____만원

■ 영어 어학연수(영어캠프)를 다녀오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다녀오신 국가를 모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4906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1. 국내

P**4907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2. 미국

P**4908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3. 영국

P**4909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4. 호주/뉴질랜드

P**4910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5. 캐나다

P**4911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6. 동남아시아

P**4912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7. 기타

(1) 다녀왔다

(2) 다녀오지 않았다

■ _____님의 영어 회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P4921**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모든 응답자)

(1) 거의 할 수 없다

(2)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3) 일상회화 정도는 가능하다.

(4) 외국인과의 업무상 논의가 가능하다.

(5)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다.

■ _____님께서는 현재 본인의 영어 읽기와 쓰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P4922**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모든 응답자) 1. 독해

P4923**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모든 응답자) 2. 작문

(1) 거의 할 수 없다

(2) 약간 가능하다

(3) 잘 하는 편이다

(4) 아주 잘 한다

■ _____님께서는 현재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경우에는 0만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P4931**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모든 응답자)

P4932**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모든 응답자) 1주일 평균 _____시간

P4933**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모든 응답자) 한달 평균 _____만원

(1) 예

(2) 아니오

■ _____님께서는 토익(TOEIC)이나 토플(TOEFL), 텡스(TEPS) 시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P4941**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모든 응답자)

(1)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중 하나라도 본 적이 있다.

(2)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중 하나도 본 적이 없다.

※ **P**4941**에서 (1) 시험본 적이 있기에 응답한 경우

▣ 보신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친 시험에 대해 (2)시험을 친 연도와 (2)받은 점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토익(TOEIC)과 토플(TOEFL), 텡스(TEPS) 시험을 모두 봤다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토플(TOEFL)은 시험을 보는 방법에 따라 ①종이로 시험을 친 경우(PBT) ②컴퓨터로 시험을 본 경우(CBT) ③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본 경우(IBT)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점수 체계가 다르니 먼저 어떤 방법으로 토플 시험을 쳤는지를 확인한 후 받은 점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익(TOEIC)

P4942**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익 시험 친 연도

P4943**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익 점수

2. 토플(TOEFL)

P4944**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플 시험 친 연도

P4945**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플 종류1-종이 시험(PBT)

P4946**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플 종류2-컴퓨터 시험(PBT)

P4947**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플 종류3-인터넷 시험(PBT)

P4948**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플 점수1-종이 시험(PBT)

P4949**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플 점수2-컴퓨터 시험(PBT)

P4950**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토플 점수3-인터넷 시험(PBT)

3. 텡스(TEPS)

P4951**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텡스 시험 친 연도

P4952**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텡스 점수

※ 다음은 현재 ____님의 주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현재 ____님의 주된 일자리에서는 영어 능력이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지
- (2) 요구된다면 현재 ____님의 영어 실력은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만일 (2)일자리에서 영어 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면 (2)본인의 영어 실력 수준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나의 일자리에서는 영어 능력이

P4961**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회화

P**4962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독해

P**4963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작문

- (1)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 (2) 조금 요구된다
- (3) 많이 요구된다

2.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영어능력에 비해 나의 영어 실력은

P**4964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회화

P**4965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독해

P**4966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응답자) 작문

- (1) 수준이 매우 낮다
- (2) 수준이 낮은 편이다
- (3) 수준이 높은 편이다
- (4) 수준이 매우 높다

■ _____님께서는 현재의 직장에 입사할 때 회사가 입사기준으로 영어 능력을 얼마나 중시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P**4971 1 2 3 4 5 6 7 8 9 10 (임금)

- (1) 전혀 중시하지 않았다
- (2)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 (3) 약간 중시하였다
- (4) 매우 중시하였다

■ _____님께서 현재의 직장에 입사할 때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P**4972 1 2 3 4 5 6 7 8 9 10 (임금)

- (1) 토익(TOEIC)이나 토플(TOEFL) 등 공식적인 영어 시험 성적 반드시 제출
- (2)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거나, 성적 미제출시 회사 영어 시험으로 대체
- (3) 영어 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4) 회사에서 직접 출제한 영어 시험(필기 또는 면접)
- (5)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 없음

■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승진 평가는 언제였습니까?

P**4973 1 2 3 4 5 6 7 8 9 10 (임금)

(1) P**4974 1 2 3 4 5 6 7 8 9 10 (임금) _____년

P**4975 1 2 3 4 5 6 7 8 9 10 (임금) _____월

(2) 입사 이후 한 번도 승진 평가를 받은 적이 없음

■ _____님께서서는 회사가 승진의 기준으로 영어 능력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4976 1 2 3 4 5 6 7 8 9 10 (임금)

- (1)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
- (2)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 (3) 약간 중시한다
- (4) 매우 중시한다

■ 현재의 직장에서 승진을 평가할 때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P**4977 1 2 3 4 5 6 7 8 9 10 (임금)

- (1) 토익(TOEIC)이나 토플(TOEFL) 등 공식적인 영어 시험 성적 반드시 제출
- (2)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거나, 성적 미제출시 회사 영어 시험으로 대체
- (3) 영어 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4) 회사에서 직접 출제한 영어 시험(필기 또는 면접)
- (5)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 없음